"잊지 않기 위한 예술인들의 끊임없는 시도"

■ 제주4·3 제75주년 맞아 곳곳서 전시 다채

제주민예총 예술운동 30년 발자취 살펴보는 기록전

제주문학관 김석범·김시종 특별전… 4·3문학 조명

제주4·3 75주년 4·3예술축전의 일환으로 제주민예총 4·3예술운동 30년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는 기록전 '심연의 숨, 바람의 지문'이 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민예총 제공

제주4·3 제75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예술운동 30년 성과 집대성**=제주민예총은 4·3예술축전의 일환으로 '2023 제주민예총 4·3예술운동 30년 기록전'을 지난 21일부터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심연의 숨, 바람의 지문'이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는 4·3을 과거가 아닌 치열한 오늘로 만들어 낸 제주민예총 예술운동 30년의 성과를 집대성했다.

'1관-심연'에선 침묵의 금기에 저항했던 예술을 만나게 된다. 억압의 시기에 역사의 진실을 찾으며 4·3예술의 기폭제가 되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다.

'2관-바람'에선 기억을 되살리는 진혼의 예술로써 제주민예총의 4·3예술제 30년의 발자취를 짚는다. 1994년 제주민예총 창립과 함께 시작된 4·3예술제. 문학, 시각, 공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4·3항쟁의 정신을 드러내려는 예술인들의 끊임없는 시도를 4·3예술제의 궤적 속에서 만날 수 있다.

'3관-지문'은 예술로 새긴 역사의 기억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4·3의 기억들을 모아 예술로 풀어낸 4·3예술행동 30년 동안의 작품들을 통해 4·3예술의 시대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이달 31일엔 제주 4·3정명을 위한 오석훈 화백의 예술퍼포먼스도 예정돼 있다.

▶**4·3문학의 어제와 오늘, 미래 조망**=이달 24일부터 제주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선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과 김시종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4·3 제75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준비한 4·3문학특별전 '김석범·김시종-불온한 혁명, 미완의 꿈'이다.

김석범은 대하소설 '화산도'로 1983년 아사히신문 오사라기 지로상과 1998년 마이니치 예술상을 수상했으며, 1957년 '까마귀의 죽음'을 시작으로 '땅 밑의 태양', '과거로부터의 행진' 등 제주 4·3의 진실을 탐구한 작품을 발표했다.

김시종은 1986년 '재일의 틈새에서'로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1992년 '원야의 시'로 오구마히데오상 특별상, 2011년 '잃어버린 계절'로 다카미준상을 수상했으며, 1955년 '지평선' 발표 이후 4·3의 진실과 재일 제주인으로서 실존을 탐구했다.

이번 전시에선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작가들의 삶의 궤적과 김석범·김시종 작가의 작품에 드러나는 4·3항쟁의 의미를 다룬다.

김석범 작가의 '화산도' 일본 초판본과 김시종 작가의 '이카이노 시집' 서명본이 실물로 전시되며, 두 작가의 작품 중 한국에 번역된 작품집을 관람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시실에 비치해둘 예정이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이이어지며, 전시기간 중(5월) 두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4·3 유적지 탐방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도, 문화행정 도민 체감도 높인다

24일부터 세 차례 연속 토론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 정책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문화행정 현안 과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각종 문화정책에 반영해 문화행정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콘텐츠 및 영상·미디어 분야 ▷제주 미술시장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생활권 중심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4월에 걸쳐 세 차례 제주문학관에서 진행된다.

24일 열리는 제1차 토론회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a) 연계 제주형 K-콘텐츠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1부 분임 토론과 2부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어 이달 30일에는 제주미술 창작·유통·소비 등 미술시장 활성화 및 지원 방안과 세제 및 법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4월 5일 3차 토론회에서는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 생활권 중심의 문화공간 활성화 및 협업체계 방안 등에 대해 현장 활동가, 예술인,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우리동네 작은 공연장서 즐기는 타악의 매력

'오뮤직 하우스 콘서트' 시동… 24일 첫무대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하우스 콘서트 '2023 오뮤직 하우스 콘서트'가 시동을 건다.

오뮤직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23 작은예술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6월까지 마스터 시리즈와 영 아티스트 시리즈, 소리나눔 음악회로 구성된 4회의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올해 첫 공연은 오뮤직 마스터 시리즈 열 번째 무대로 연다. 미국 내슈빌 음악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퍼커셔니스트 정지혜(사진)의 독주회로, 이달 24일 오후 7시30분 오뮤직홀(제주시 구산로1길 17)에서 열린다.

정지혜는 이날 타악기의 다양한 음향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4월엔 또 하나의 마스터 시리즈 무대(퍼커셔니스트 린친챙)가, 5월엔 오퍼커션앙상블과 함께하는 소리나눔음악회, 6월엔 영 아티스트 시리즈 무대(퍼커셔니스트 강영은)가 예정돼 있다. 오은지기자

하루의 빛으로 그려낸 제주 풍경

오는 25일부터 조인증 작가 갤러리소이 초대전

조인증 작

세계 곳곳의 풍경을 찍었어도 작가에게 제주는 보다 특별했나 보다. 작가의 앵글에 담긴 제주의 풍경은 환하고,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 이면엔 제주의 아픈 역사만큼 치유되지 않은 고통, 슬픔의 정서가 스며있다. 그런 그의 작업은 6년 전 제주로 이주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제주 섬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물, 바람, 돌, 그리고 숲은 조인증 작가에게 매력적인 피사체가 된다. 특히 의도하지 않아도 흔들림이 자연스레 담기는 제주의 바람을 그는 "생동적이어서 좋아한다"고 했다.

작가는 사진으로 표현하고 기록한 제주의 풍경을 해외에서 먼저 선보이며 제주를 알려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회의 개인전을 러시아, 이탈리아 등 모두 해외에서 여는 동안 세 번의 전시 주제가 제주였다. 2018년 러시아 쌍트페테르브르크 주립미술관에서의 '신비스러운 섬, 제주도'전과 2019년 이탈리아와 2020년 다시 러시아에서 선보인 제주의 풍경 '수·풍·석·림'전이다.

그 사진들을 제주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오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포도호텔 내 갤러리소이에서 열리는 초대전 '하루의 빛'을 통해서다. 전시엔 하루의 빛으로 그려낸 제주의 '수(水)·풍(風)·석(石)·림(林)'이란 부제가 달렸다.

디지털 시대에도 중형 흑백 필름을 찍어 한지에 프린팅하는 전통적인 기법의 작업을 고수하고 있는 작가는 최근작을 더해 총 11점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본업이 따로 있기에 작가의 사진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는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제주를 바라보고 느끼며 이미지를 만들어가려 한다. 그리고 그 기록이 많은 이들에게 제주의 보존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길 바란다. 오은지기자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네트워킹 페스티벌 작품 공모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네트워킹 페스티벌 참가 작품 공모가 진행 중이다.

미래지향적인 연극을 지향하는 네트워킹 페스티벌은 기성 연극에서 도전하지 못했던 주제, 형식, 방법론을 갖춘 연출자를 중심으로 한 극단들이 연극을 매개로 교류와 소통 그리고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팀에게는 공연창작료 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1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극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축협 조합장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제주양돈축협 조합장

천 창 수

김 용 관

고 권 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김 재 우**

제 주 지 부 장 **서부칠** 제주서부지부장 **김진삼**
서귀포지부장 **고봉석** 서귀포최남단지부장 **양정규** 외 **회원 일동**